



모토로라, 자동차 전용 블루투스 대응 제품

모토로라가 블루투스를 이용한 자동차 전용 오토모티브 뮤직&핸즈프리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자동차 전용 스테레오 시스템으로, 휴대폰이나 MP3 플레이어를 1개의 시스템으로 조작할 수 있다. 핸드프리 통화를 위한 휴대폰 스피커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이즈나 에코를 줄여주는 기능과 주위 소음에 따라 볼륨 조절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차내에서도 쾌적하게 통화나 음악을 즐길 수 있다.

휴대용 스피커는 어디든 부착이 가능한 손바닥 크기이다. 블루투스 대응 휴대폰의 통화를 무선으로 전달한다. 스테레오 시스템과 같이 노이즈나 에코를 줄여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은 통화 14시간, 착신 대기 14일간.

스테레오 시스템은 2007년 상반기에 출시되며, 스피커는 현재 출시됐다.

‘AMD+ATI’, ‘프로세싱 파워하우스’로 재탄생

AMD가 지난달 25일(미국시간 기준) 54억 달러 규모의 ATI 테크놀로지스 인수 작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병에 따라 양사는 프로세서 제품의 유연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인수계약의 조건에 따라 AMD는 ATI의 모든 유통주식을 43억 달러 현금과 5800만 주 AMD 보통 주를 지급해 인수했다. ATI의 인수 총액은 약 54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2006년 10월 24일의 AMD 보통주 종가인 주당 20.32달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ATI를 인수하는 것으로 AMD는 프로세서 시장에서 지반을 강화해 보다 통합된 프로세서나 그 주변 칩 세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ATI의 그래픽 칩, 주변 칩 등을 자사 프로세서와 통합해 PC의 입출력 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지원하게 되는 것.

AMD는 이 새로운 통합형 플랫폼을 상업용, 모바일 컴퓨팅, 게임, 미디어 등의 시장에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그 첫 버전으로 AMD는 2007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윈도우 ‘비스타’ 전용으로 최적화된 이미지 플랫폼 제공 기업 PC전용 제품을 발표할 계획이다.

AT&T, “밖에서 휴대폰으로 집안 감시하세요”

미국 AT&T가 가정용 비디오 감시 서비스(Remote Home Monitoring Video Service)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외출지에서 PC나 휴대폰 등으로 집안에 설치한 비디오 카메라나 센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전기 조절도 가능하다. 이용도 간단하다. 집안 센서가 자택 내 움직임을 감지, SMS로 휴대폰에 보내주면, 동시에 집안에 불을 켜거나 녹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카메라와 문·창용 센서 소프트웨어 등이 패키지로 구성된 한 세트(199달러)를 구입하고, 월 정액 9.95달러를 지불하면 된다.

별도 요금을 내면, 실내의 온도나 누수를 감지하는 센서, 전기를 조절하는 리모트 컨트롤 등도 추가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나 휴대폰·PDA로 이용이 가능하다.

AT&T는 이 서비스를 ‘유무선 컨버전스형 새로운 서비스’로 정의했다.

버라이즌, 플래시 기반 애플리케이션 출시

어도비시스템즈, 버라이즌 와이어리스 및 켈컴은 어도비 MAX컨퍼런스에서 버라이즌 와이어리스의 네트워크를 통한 어도비 플래시 라이트 기술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켈컴 브루용 플래시 라이트(Flash Lite for BREW)버전은 버라이즌 와이어리스의 무선 통신 서비스인 '겟 잇 나우(Get It Now)'가 지원되는 모바일폰에서 플래시 콘텐츠 사용 및 무선 통신을 통한 배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플래시 및 휴대폰 개발업체들은 수백만의 버라이즌 고객들을 대상으로 플래시 애플리케이션, 스크린세이버, 캐주얼 게임 등 플래시 기능을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리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 데이터 서비스 등을 제작해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켈컴 브루용 플래시 라이트(Flash Lite for BREW)버전은 현재 LG V(LG VX9800), 모토로라 레이저 V3c 및 V3m, 삼성 SCH-a950 모델 등에서 다운로드 탑재가 가능하다.

NEC·NTT, 원격지 아이 돌보는 '로봇 시스템' 실험

NEC와 NTT가 가정용 로봇을 휴대폰으로 원격 조작, 아이를 지켜 볼 수 있는 로봇 시스템 '메일로보('메루로보')연락장'의 실증실험을 11월부터 올해 말까지 행한다.

이 시스템은 NEC의 로봇 '파페로(PaPeRo)'와 NTT의 서버 기술('ActionSwitch' 플랫폼)을 연계, 휴대폰 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외출지에서 아이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거나 로봇에 동작을 지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ActionSwitch 플랫폼'은 휴대폰 메일을 해석, 로봇에 지령을 전하는 역할을 맡는다.

양사 설명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키워드 추출 커맨드 변환 기술(NTT) ▲ 유저관리 기술(NTT) ▲ 서버와 연동한 로봇 서비스 기술(NEC)이 핵심기술로 이용됐다.

이번 실험에서는 보호자가 휴대폰으로 로봇에 명령을 내리고, 아이가 노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회신하는 '메일로봇'과 유치원 보모 등이 로봇으로 촬영한 아이 모습을 블로그 형식으로 기록하는 '로봇연락장' 두 종류가 행해진다.

초기 제품은 휴대폰으로 바로 로봇에 명령을 내리는 식이었지만, 이번 시스템은 서버를 경유,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NEC 관계자는 "웹 카메라로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로봇이 이용된다는 점에서 아이들이 보다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감시 받는 기분을 꺼려하는 수요에도 대응한다"고 말했다.

델, 'AMD 탑재 노트북' 출시 ... '脫인텔' 가속

델이 AMD 프로세서를 채용한 노트북PC를 내놓았다.

월 스트리트 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델은 AMD 프로세서를 채용한 노트북 PC '인스피론(Inspiron) 1501'을 출시, 이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델은 이미 지난 5월 18일(현지시각), 자사 제품에 AMD의 프로세서를 채용한다고 발표, 이전 '인텔 독점'을 깬 바 있다. 이후 델은 자사 데스크톱 PC와 서버 시스템에 AMD 프로세서를 채용, 발표했지만, 노트북PC로 이를 확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델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AMD 프로세서를 채용한 노트북을 초기화면에 실고 본격적인 판매를 개시했다.

MS·노벨 손잡았다… 윈도·리눅스 호환 실현

마이크로소프트와 노벨이 지난 2일(현지시각), 양사 제휴를 발표했다. MS가 노벨의 리눅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형태의 이번 제휴는 기술, 특히, 비즈니스 등 포괄적인 분야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은 최소 2012년까지이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윈도와 리눅스간 호환'이라는 점에서 이번 양사 제휴는 업계에 상당한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아울러 세계 최대 SW 판매업체(MS)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의 리더(노벨)간 '적과의 동침'이란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제휴에 따라 양사는 공동으로 연구 시설을 설립, 윈도와 리눅스의 상호 호환을 가능케 하는 솔루션 개발 및 해당 솔루션의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상화, 가상화 관리를 위한 웹 서비스, 문서 포맷의 호환성 등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둘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 영업도 함께 한다. 윈도와 리눅스를 모두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양사 설명.

양사는 또 상대 기업 제품 사용자에게 대해 특히 침해해 제기하지 않는 데도 합의했다. 양사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MS의 스티브 발머 CEO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현실되었으며, 이번 제휴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것"이라며, "이는 양사 관계의 진정한 진화"라고 말했다.

드디어 개막! 'EVDO Rev.A' 시대 스프린트 '첫발'

최고 하향 3.1Mbps, 상향 1.8Mbps를 실현하는 EV-DO Rev.A 서비스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 미국의 스프린트가 지난달 24일 공식 서비스 개시에 들어갔다. 스프린트에 이어 일본의 KDDI는 12월 서비스에 돌입한다. 국내에서는 LG텔레콤이 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프린트는 지난달 24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EV-DO Rev.A'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스프린트 파워 비전(Sprint Power Vision) 서비스 가입자는 즉시 EV-DO Rev.A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스프린트는 2006년 말까지 보스턴,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20개 도시에서도 차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프린트는 2007년 3분기까지 파워비전 네트워크 전체를 EV-DO Rev.A로 바꿀 예정이다.

EV-DO Rev.A 서비스 개시에 맞춰 스프린트는 11월 초 노바텔 와이어리스(Nobatel Wireless)가 제조한 모바일 브로드밴드 USB 모뎀 'U720'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모뎀을 노트북의 USB 포트에 삽입하면 파워비전 네트워크에 무선으로 접속할 수 있다. 가격은 249.99달러이지만 스프린트와 2년간 약정 계약을 맺으면 49.99달러에 구입할 수 있다.

KDDI는 'EV-DO Rev.A'를 12월부터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서비스 지역은 2006년 말까지 전국 주요 도시이며, 2009년 말까지 전국 소규모 도시까지 커버한다.

노키아, '휴대폰·WiFi간 자동전환' 솔루션 발표

노키아가 이동전화와 무선랜(Wi-Fi)에 모두 대응하는 듀얼모드 솔루션 '노키아 서비스 스위트(Nokia Service Suite)'를 발표했다.

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채용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들은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두 네트워크 중 하나를 선택, 음성통화는 물론, 그림이나 음악, 동영상 등 다운/업로드 및 e-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솔루션은 노키아 'N시리즈'와 'E시리즈'에 대응하며, 특히 오픈 플랫폼으로서 다른 무선랜 기종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노키아는 설명했다.

노키아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브로드밴드 텔레포니 사업자인 텔리오(Telio)가 이 솔루션을 최초로 채용, 상용 서비스를 예정하고 있다.